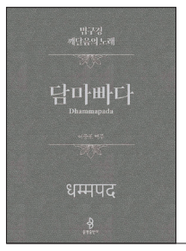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6~7/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사유수	6	초기불교 이해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2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7	내면 소통: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 근력 훈련	김주환	인플루엔셜
3	금강경 오가해(불광선문총서4)	무비	불광출판부	8	아비담마 길라잡이(2)	아누룻다/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4	붓다의 말씀	냐나틸로카/김재성	고요한소리	9	숫타니파타(빠알리대장경/쿳다까니까야)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5	기도 성취의 지름길	우룡스님 지음	효림	10	자타카전서:부처님본생이야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책세상

순수한 붓다 가르침 만나고 싶다면…



담마빠다
이중표 역주
불광출판사 / 2만5000원



가장 널리 읽히는 불교 고전 〈법구경〉
석학 이중표 명예교수가 우리말로 옮겨
우리말 〈담마빠다〉 새로운 표준을 제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서고금을 아우르며 널리 읽히는 책을 우리는 '고전(古典)'이라고 한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을 꼽자면 단연 〈담마빠다〉(법구경)다.

〈담마빠다〉는 붓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담마(dhamma)'와 시구(詩句)를 의미하는 '빠다(pada)'의 합성어로써 '진리의 말씀' 혹은 '깨달음의 노래' 등으로 번역된다. 문자가 없던 시절 암송되어 오던 가르침을 훗날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총 26품 423개의 게송으로 구성돼 있으며, 초기경전 5부 니까야 가운데 〈쿳다까니까야(Khuddakanikāya)〉에 수록됐다.

1행이 8음절인 4행의 법구(法句)로 이루어져 있는 운문 형식의 〈담마빠다〉는 빠알리어로 소리 내어 읽으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된다. 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절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본연의 리듬감이 퇴색되어 버린다. 기존 번역서들이 가진 문제점은 대개 여기에서 비롯된다. 운율을 살리기 위해 종종 단어의 배치를 바꾸거나 생략하다 보니 뜻이 왜곡되거나 모호해져 버리고, 반대로 직역에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 문장이 투박해져서 원전의 글맛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불교 석학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가 최근 역주해 발간한 〈담마빠다-법구경, 깨달음의 노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역자는 철저한 사전 작업을 통해 기존 번역서들의 오류를 면밀히 파악하고, 빠알리어 경전과 사전을 폭넓게 검토해 단어들의 다양한 용례를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새롭게 원전을 번역하면서 기존 번역서들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표현의 적확성을 높이고, 문맥을 해치지 않는 의역을 통해 가독성과 리듬감을 살렸다. 더불어 빠알리어 원문과 한역(漢譯) 〈법구경〉의 원문도 함께 실어서 한글 번역과 원전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원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본래의 뜻과 의역한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기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 각기 다른 배경 문화와 표기법을 가진 두 언어를 완벽하게 일치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번역과 나쁜 번역을 가르는 기준은 얼마나 원전의 뜻을 있는 그대로에 가깝게 전달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번역자의 언어 활용 능력뿐 아니라 원본 텍스트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

지난 30여 년 동안 니까야 시리즈(〈정선 디가 니까야〉 〈정선 맛지마 니까야〉 〈정선 쌍윳따 니까야〉)를 선보였던 이중표 명예교수에게도 〈담마빠다〉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첫 완역 책이기 때문이다.

'처음'인 만큼 역자는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거듭 퇴고하면서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 신중하게 골랐다.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불교 경전을 접하고, 조금 더 바르게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하고픈 마음에서다.

나아가 평소 불자들이 〈담마빠다〉를 가까이하면서 탐독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가볍고 튼튼한 가죽 재질의 표지와 휴대하기 편한 아담한 크기로 책을 만들었다.

생전 법정 스님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삼아 자주 〈담마빠다〉를 펼쳐본다고 하셨다. 그만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삶에 귀감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서다. 헤매는 마음에 길을 밝혀 주는 가로등과 같은 말, 나태해진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책과도 같은 말,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여 주는 따스한 격려의 말들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다.

많은 선지식들이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어렵지 않다. 〈담마빠다〉 역시 어렵지 않다. 〈담마빠다〉에 수록된 423개 게송들도 짧고 간결하며, 그 안에 담긴 붓다의 가르침도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붓다의 순수한 가르침이 〈담마빠다〉엔 담겼다.

▲이중표 명예교수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년 후 동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해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정선 디가 니까야〉 〈정선 맛지마 니까야〉 〈정선 쌍윳따 니까야〉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불교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Dh. 001.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가 되어 마음이 만든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바람이 약한 나무 쓰러뜨리듯.

Dh. 052.
모습도 아름답고
향기 좋은 꽃처럼
잘 설해진 부처님 말씀도
실천해야만 결실이 있다.

Dh. 111.
지혜 없이 어지럽게
백 년을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추고 선정에 들어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

Dh. 214.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에도 없다.

Dh. 372.
지혜 없이 선정 없고
선정 없이 지혜 없다.
선정과 지혜가 있으면
그곳에 열반이 있다.

불교·영어 함께 공부하는 교과서



불교 영어 첫걸음
안양규 지음
올리브그린 / 1만5000원



영어로 읽어 깊게 사유 할 수 있어
불교 용어 명확하게 이해도 높여줘
총5장으로 구성, 전반적인 불교내용

불교와 영어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새롭게 집필됐다. 〈불교 영어 첫걸음〉은 불교 입문자가 불교 기초 지식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서적이다.

저자 안양규 교수(동국대 WISE캠퍼스)는 영어로 불교 공부할 때 얻는 이점에 대해 '깊게 사유하는 공부 태도'를 꼽았다. 안 교수는 "익숙한 한글로 적힌 불교 서적은 기계적으로 읽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건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며 "깊게 사유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갖추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 다른 집필 이유는 '명료성'이다. 불교와 영어는 인도유럽어족으로 비슷한 언어 구조를 보인다. 특히 언어에서 사용하는 시제와 인칭, 단수, 복수 등 문법 등이 유사해 한글과 한자로 담을 수 없었던 의미 구조도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저자는 "영어로 불교 공부를 하면 얻게 되는 이점 중 하나는 중요한 불교 용어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하거나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한국불교는 삼국 시대 불교가 전해진 이래로 한역 경전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원래의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영어는 불교 원전 언어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원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자의 또 다른 책 집필 동기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현재 저자는 동국대 WISE캠퍼스에서 불교학부 대상으로 불교영어입문 강의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 후 갖춰야 할 역량과 학문연구에 영어 교육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불교 영어 첫걸음〉은 불교 영문 본문과 한글 번역이 함께 이루어져 있으며 각 본문에 대한 영어 설명과 한글 설명이 주석으로 안내되어 편리성을 더했다.

목록은 총 5부분으로 'Ⅰ.불교로의 안내에서'는 불교와 붓다, 불교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Ⅱ.붓다의 생애'에서는 붓다의 전기에 대해 실었으며, 'Ⅲ.붓다의 가르침'에서는 칠불통계, 업과 윤회, 사성제, 자애명상을 담았다. 'Ⅳ.붓다의 제자'에서는 불교 공동체, 불자가 되는 법, 붓다의 제자 3명을 소개했으며, 마지막 'Ⅴ.불교 이야기'에서는 9편의 불교 이야기가 실렸다.

저자는 〈불교 영어 첫걸음〉을 영국에서 발간한 Buddhism Key Stage 1과 Key Stage 2를 기본 자료로 삼았으며, 스리랑카에서 발간한 불교 교육 도서와 불교 관련 인터넷 자료를 편집해 새롭게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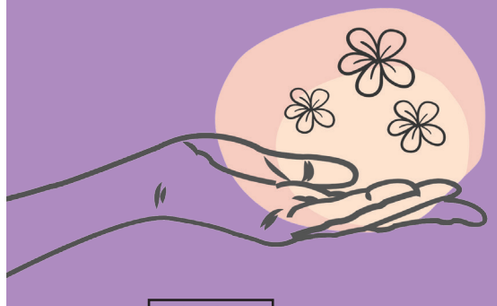
안 교수는 "영국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누구나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쉽고 편안하게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며 "국제 포교뿐 아니라 영어와 함께 불교를 교수하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 안양규 교수는 서울대학교(종교학)와 동국대학교(불교학)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밟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동경대학교 외국인 연구원,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역·저서로 〈붓다, 자기사랑을 말하다〉, 〈붓다의 입멸에 관한 연구〉, 〈The Buddha's Last Day〉등이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출가, 입산,
부처의 삶을 가다

신록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의 편지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 동학사!
동학사 화엄학림장 일초 스님과
학인들의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
일초 지음 | 292쪽 | 14,500원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일상생활상
KBS 2TV 다큐 3일의 신선한 감동!
비구니 강원 청암사의 365일!
청암사 승가대학 편집실 | 360쪽 | 15,000원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수녀에서 비구니스님으로
독특한 이력의 일아 스님,
고등학교 교사에서 종교인으로!
태국, 미얀마, 미국에서 보낸 종교인의 삶!
체험으로 빚은 수행철학, 깨달음의 책
일아 지음 | 356쪽 | 12,000원

마음 거울
그림자와 떠나는 치유 여행
마음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의 개척자이자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상담가들의 스승인
대화 스님의 상담 사례집!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의 행복을 선사하는 책
대화 지음 | 328쪽 | 15,800원

종이 칼
법념 스님의 산문집
팔순을 바라보는 노비구니스님이
컴퓨터 자판을 친다. 불현듯 연말이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진다.
법념 지음 | 252쪽 | 13,800원

살다보면 살아진다
대중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하는 정운 스님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책
정운 지음 | 252쪽 | 13,800원